

가난·이별·병마... '3뽕'로 그린 삼다도 예술혼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18> 화가 이중섭과 제주



제주도 이중섭거리에 자리한 이중섭미술관과 그가 한때 거처했던 초가집은 불우했던 천재화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이다.

<사진제공=이중섭미술관>

“선량한 우리 네 가족은 세상에 소용없는 하나 둘 정도 죽어서라도 반드시 살아가야 하오. 무작정 미안하다, 면목 없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그런 말은 우리 가족이 하루에 한 끼만 먹더라도 생활을 시작한 다음의 문제가 아닌가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단칸방이라도 하나 빌려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생활을 시작한 다음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 빨리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소.” (‘이중섭 편지’중에서)

올해 발간된 ‘이중섭 편지’(현실문화)에 실린 일부분이다. 편지에서는 이중섭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편지 행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극하고 따스하다. 그의 편지는 한 인간의, 아니 한 가정의 피복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가졌고 끈질긴지를 보여준다.

‘단칸방’ ‘하나’ ‘빌려’ ‘한 끼’의 여위가 주는 뉘앙스는 처연하다. 인간의 존엄을 비루함과 비참함으로 대체시키는 불모의 언어다. 그 결핍의 상황에서 희구하는 ‘안정’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을 터이다. 그는 화가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다. “단칸방이라도 하나 빌려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라는 말에서, 참을 수 없는 생의 무거움과 버거움이 읽혀지는 건 그 때문이다.

이중섭은 호구지책을 할 수 없어 아내와 아이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낸다. 6·25전쟁과 가난은 이중섭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렸다. 이중섭의 부인은 일본인 마사코(남덕)였다. 그가 서툰 일본어로 편지를 쓴 이유다. 편지 행간에 담긴 숨결에서 가난한 가정의 서글픔이 배어나온다. 그러므로 가족과의 이별과 생의 곤고함 속에서 피워낸 예술의 꽃은 강렬하면서도 송고하다.

미술평론가 유홍준은 예술가들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화가 이중섭이 6·

6·25 발발 후 제주로 피난

가족들 일본 보내며 생이별

1.4평 감옥같은 방서 작품 남겨

갤러리·예술시장 등 이중섭 추억



‘소와 어린이’

25동란 중 떨어져 있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그의 예술이 그리움의 미학으로 가득함을 남김없이 말해준다”고 평한다.

무참하고 불운한 시대 천재 예술가의 삶은 늘 감동을 주기 마련이다. 대향(大鄕) 이중섭(1916~1956). 그는 불우한 시대 예술 인생을 상징하는 대표 화가다. 제주도 서귀포에는 그의 예술혼이 오롯이 배어 있다. 1952년 6·25 발발 이후 그는 가족을 이끌고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 그러나 물 설고 말 설은 섬은 가난한 예술가가 뿌리를 내리기에 역부족인 곳이었다.

그는 11개월의 시간을 머무는 동안 가혹한 시련에 직면한다. 정신분열증, 영양실조, 간염에 시달려야 했고 식습관을 일본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사선

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예술혼을 불살랐다. 그가 거처했던 방은 고작 1.4평짜리 공간이다. 방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고 참담한 면적이다. 그 ‘감옥’ 같은 방에 들어서면 불우했던 천재화가의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아니 ‘지상의 방 한칸’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된다.

절해의 고독과 병마 속에서도 이중섭의 그림은 거침이 없다. 미술에 조예가 없는 사람도 ‘황소’ 그림 정도는 안다. 어떤 이는 “소 그림에서 사람의 얼굴을 본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화가 자신을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평한다. 역동적이면서도 강렬한 원색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만만치 않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근한 동물인 소를 이중섭은 그렇게 자신만의 색채와 선으로 형상화했다.

그 뿐 아니다. 이중섭은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꽃과 나무, 물고기와 배치해 곧잘 그렸다. 단순하면서도 탄력적인 선과 유머러스한 표정들은 ‘소’ 그림과는 상이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모든 작품은 예술가를 닮는다는 명제를 떠올린다면 이중섭의 그림은 바로 이중섭 자신을 표상한다.

평남 평원군에서 비교적 유복한 집안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는 유목의 삶을 살다시피 했다. 그가 유년시절을 보낸 곳은 웅촌한 고구려 고분 벽화가 있는 곳과 멀지 않았다. 오산학교를 거쳐 일본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운명의 여인 마사코를 만난다. 귀국해서는 원산사범학교 미술교사를 하기도 했으나 큰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는다. 그리고 얼마 후 발발한 전쟁으로 부산을 거쳐 제주도로 옮겨가게 된다. (이후 그는 부인과 아이들이 일본으로 떠난 후, 통영과 대구를 거쳐 서울로 간다.)

이처럼 그는 타지를 전전해야 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다. 인생은 바다에 뜬 한 조각의 조각배와 다르지 않음을 그의 유목의 삶이 증명한다. 이중섭의 삶의 행로를 좇다 보면 수시로 거처를 옮겨야



서귀포 ‘이중섭 거리’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했던 빈한한 예술가의 슬픈 자화상을 보게 된다.

제주도 또한 ‘이중섭의 섬’이다. 서귀포는 ‘이중섭의 도시’다. 그곳에는 ‘몽마르트 언덕’이라 불리는 ‘이중섭 거리’가 있다. 그는 가고 없지만 예술혼은 남아 사시사철 제주도를 문화의 향기로 적신다.

“이중섭을 기려 이름을 붙인 거리에는 야외 전시대, 창작 스튜디오, 공예광방, 갤러리, 카페 등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울부짖는 소’ ‘물고기와 아이’ 등 이중섭의 그림을 형상화한 가로등이 있어요. 매월 넷째 주 주말에는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 예술시장이 열립니다.”

전은자 이중섭미술관장의 설명이다. 이어 전 관장은 “미술관에서는 이중섭의 생애와 예술을 아우르는 상설 전시가 열리고 있고 기념품판매 공간이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2016년 이중섭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중섭 창작오페레타’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바람이 스산한 가을 날, 서귀포 ‘몽마르트 언덕’을 걷다보면 불현듯 어느 곳에서 맑은 눈을 지닌 중년의 이중섭을 만날지 모른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기다리며 예술혼을 불살랐던 우리들의 화가 이중섭을 말이다. 어쩌면 그의 나직한 목소리도 들을 수도 있겠다.

“가장 소중한 사랑스러운 아내와 모든 것을 바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술은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래요.”(1954년 12월의 편지 중에서)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태리 가구 전문점 100% MADE IN ITALY

소파 식탁 보상판매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 ☎ 1899-0240 11월 28일까지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